

# 찬 공기 밀어낸 태풍 난마돌...광주·전남 이례적 '9월 폭염'

### 광주 35도·광양 36도...오늘 밤 찬공기 유입 평년 기온 회복할 듯

완연한 가을을 나타내는 절기인 '백로'와 '추석'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에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부터 광주·전남에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때늦은 무더위는 누그러졌지만, 11년만의 이례적인 9월 중순 폭염으로 지난 주말 지역민들은 더위를 식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을 시작으로 18일 현재 나주와 화순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돼 3일간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에 9월 폭염특보가 나온 것은 2011년(9월15-17일, 광주 34.5도, 순천 35.2도, 광양 35.4도 등) 이후 11년 만이다.

18일 담양은 35.4도, 벌교·보성·광주는 35.0도, 화순은 34.4도로 때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광양은 36.3도로 이날 전남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폭염특보가 시행된 2008년 6월 1일 이후 전국에 9월 폭염특보가 발령된 횟수는 2010년 2회, 2011년 4회, 2019년 1회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인 만큼 9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일본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동해상의 고기압이 겹쳤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퍼올리면서 공기가 데워졌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도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더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무더위는 19일 오후부터 차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19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19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전남 동부지역이 난마돌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일부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매우 강' 강도로 발달한 태풍 난마돌은 지난 14일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해상에서 생성돼 18일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19일 오전 일본 규슈 북부지역에 상륙하면서 부산·경남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에는 강풍 반경에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지만, 18일 해안가를 중심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가에는 초속 15-25m의 바람과, 내륙에는 초속 1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와 전남에는 19-20일 사이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안 쪽으로는 태풍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태풍이 지나가는 20일까지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될 예정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난마돌은 19일 오전 8시께(중심기압 955hPa, 매우 강) 여수에서 280km, 광주에서 370km 거리로 가장 가깝게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륙쪽 피해보다 해상쪽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강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밤에도 덥네요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저녁 바람을 쐬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현대산업개발 주거지원책 '강행'

### 화정아파트 입주 예정자 847세대 서류 접수 시작

### 예비 입주자 "실효성 없는 지원책 일방적 추진" 반발

HDC현대산업개발이 19일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서류를 접수한다.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실효성 없는 지원책이라고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입주자들과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대책은 2630억원을 들여 주거지원비와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총 847세대 입주자와 금전대출 계약을 맺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한

가구당 평균 3억 3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는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가구당 1억 1000여만원 안팎의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할 방침이다.

'중도금 대위변제' 명목으로는 가구당 2억 2000만원 안팎을 빌려줄 계획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대출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을 선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예비입주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현대산업개발측은 설명했다.

화정아파트 계약자들은 이같은 대책들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승환 화정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는 "계약서대로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의 6.4%를 배상금으로 줘야 하는데, 중도금을 대위변제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주면 된다"며 "중도금 대위변제 자체가 입주 지연 배상금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중도금을 빌려주되 적정 이자는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무이자' 대출로 선회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22일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회사측에 실질적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남보다 무서운 가족

### 광주·전남 직계 존속 상대 범죄 매년 150여건 발생

광주·전남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가 해마다 15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가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서초갑)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263건, 전남에서 486건의 존속범죄 피의자가 붙잡혔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 50건→2018년 62건→2019년 54건→2020년 48건→2021년 49건이 발생해 매년 50여건의 존속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17년 83건이던 존속범죄가 2021년 100건으로 늘어 5년 사이 2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전국 존속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존속폭행이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많았다.

존속 살인은 최근 5년간 총 154건이 발생해 174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범죄(3756건) 중 4%가 존속살인인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무등산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받으려 꼼수" 주장

### 국립공원사무소 진상 파악 중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은 원효사지구 일부 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보상

이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진상 파악중이라고 18일 밝혔다.

2016년 원효사지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는 16개에 불과했지만, 보상 기준이 마련된 이듬해에는 사업자 등록 수가 45개로 늘어났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건물 내부를 꾸미고 영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원효사지구 상업시설들은 계속해 위치해 여름철에만 장사하는 곳도 많아 (상점) 겹모습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업 보상은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영업에 따른) 납세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